

식탁의 초가공식품, 보험산업 새 뇌관 부상

비만·질환 늘어 손해율 악화
보험금 청구 증가 우려 확산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현실화
보험업계 지속 모니터링 필요



Chat GPT가 생성한 초가공식품 보험 리스크 이미지.

초가공식품이 일상 식탁을 장악하면서 건강 위험이 정책·법정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규제 강화 조짐과 국내 비만·영양지표의 경고음 속에 보험업계는 장기 손해율과 제조사 배상책임 변수를 동시에 안게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규제 변화 및 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2023년 평균 섭취 열량의 55%가 초가공식품에서 왔고 청소년은 61.9%로 더 높았다. 멕시코 가계 조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1984년 10.5%에서 2016년 23.1%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형 NOVA 분류(식품을 가공의 정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체계)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인 식

단 29.3%의 열량이 초가공식품에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 고섭취군이 저섭취군보다 지방간 위험이 1.75배,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장기적으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빈도와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초가공식품 고섭취와 만성질환·사망 위험 증가의 연관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초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15% 높고 심

혈관·호흡기·대사질환 및 특정 암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은 건강보험 고액 청구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이므로 생명·건강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암·뇌·심 보장을 중심으로 '진단·치료·후유장애·사망'이 겹겹이 발생하는 장기 구조에서 위험군의 저변이 넓어지면 빈도와 평균 지급액이 동시에 오른다. IFRS17(보험회계기준) 체계에서 사고율·손해율·유지율 가점은 계약서비스 마진(CSM)과 직결돼 미세한 가정값 변화도 장부 변동성으로 증폭되기 쉽다.

아울러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유

해성과 잠재적 중독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돼 제조·유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식품 오염', '금속 이물질 혼입' 등 물리적 위해에 따른 제품 리콜이 주요 보험금 청구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의도적 중독성 설계', '장기적 건강 악화 가능성 미고지'와 같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제조·부적절한 판매가 새로운 소송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중독성이 있는 초가공식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소송은 대규모·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업계 전반에 막대한 방어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초가공식품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한 규제 변화와 분쟁 가능성은 손해보험의 제품책임·배상책임 위험과 생명·건강보험의 손해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요술과자점 유튜브 공개

KB국민카드는 7일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슈우회'의 본편 2화 '요술과자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요술과자점은 앞서 공개한 티저 영상 '사장님의 보석함'과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에 이은 세 번째 영상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빵을 전달해 온 50년 경력의 제과명장 민부곤 사장의 이야기가 담겼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민부곤과자점'을 운영하는 민 사장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빵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착한 가게 및 지역 나눔 가게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하나카드 카드 디자인 제안하세요 제3회 플레이트 공모전



하나카드가 '제3회 하나카드 플레이트(Plate)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 참여자들이 ▲영프리미엄카드 ▲지역화폐

카드 ▲시니어카드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정해 디자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참신성, 트렌디함, 활용성, 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1등(1명) 500만원, 2등(2명) 각 200만원, 3등(4명) 각 100만원, 4등(10명)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상작은 오는 11월 21일 하나카드 공식 홈페이지, 하나페이 애플리케이션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는 내달 19일까지다.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구월점 오픈기념 경품 이벤트

삼성카드는 자사와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구월점'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삼성카드는 이달 21일까지 트레이더스 구월점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보냉백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추억의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 ▲냉장 와규 모듬 ▲세타필 크림 등 경품도 제공한다.

행사대상인 트레이더스 제휴카드로는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5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비즈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비즈 디스카운트 등이 있다. /안재선 기자

건전성 확보 나선 저축은행, 中企 대출 축소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우려 커져 대기업 중심 기업신용대출 확대

주요 저축은행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여신을 늘리고 있는 것.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43.8%에서 2024년 39.9%, 2025년 3월 기준 37.7%로 줄었다. 반면, 최근 대기업 여신 비중은 상승했다. 대기

업 대출 비중은 2023년, 2024년 말 기준 약 1.29% 수준을 이어오다 올해 1분기 기준 1.57%로 소폭 상승했다.

모아저축은행 역시 같은 흐름이다. 모아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율은 지난 2023년 61.2%, 2024년 55.4%, 올해 1분기 기준 53.4%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 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4.7%로 감소하다 다시 5.0%로 오르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업권 자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위주에서 기

업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흐름이라는 업계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들의 주력 대출 상품은 소위 열위한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PF대출, 중도금 대출 등이 위주였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저축은행들이 기업신용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신용대출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 비중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부동

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와 자산 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지난해 동기 대비 42.7% 감소했다. 현재까지 대출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회사채 발행까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더 심화된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F대출 대상이 되는 부동산 시행사와 일반 중소기업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금줄 마련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달 둘째 주 수원 영통동 등 전국 10곳서 5512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건본주택은 의정부 등 2곳 개관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 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레시앙' 2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서 부대1지구 도시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천안아이파크 시티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8㎡, 총 1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임대분(245가구)을 제외한 9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성호수공원 일대는 부대지구를 포

함해 성성, 부성,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9년 지하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지구 A1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 '의정부우정A1'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538가구 규모이며 이중 사전청약 공급분(300가구)을 제외한 238가구를 이번에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부로 등을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다. 버들개초, 녹양중, 경기북과학교 등이 가깝다. 건본주택은 주택전시관 관람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기준 3억6714만~3억9075만원 선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은행 첫 거래 손님 대상 연7.7% 비대면 적금

하나은행이 처음 거래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오늘부터, 하나 적금'을 출시했다.

올해 말까지 5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매일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7%를 더해 최고 연 7.7%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4.7%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5% ▲적금 가입 전 하나는 행 상품 등 선택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연 0.5%이다. /나유리 기자 yu115@